F언니의 두번째 상담실
-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목차

데이트폭력이 뭔가요?

내 탓이 아니야 **7**
데이트폭력이란 **27**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8**

이게 데이트폭력 맞나요?

F언니의 상담실 **32**
진상애인열전 **44**
피해자가 말하는 가해자 **58**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지지자원 모색하기 **62**
상담소 찾아가기 **64**
사법제도 이용하기 **65**
피해자의 한마디 **71**

주변에서 누군가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72

부록 78

1장



데이트폭력이 뭔가요?



내 탓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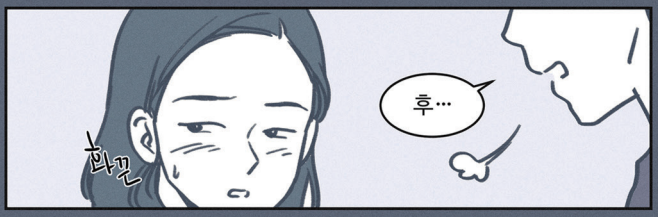
글 서이레
그림 서기진


나는 의심하고 있다.
내 방 침대 위.
남자친구가 선물한 인형을 안고.
ㅋㅋㅋ진짜 귀엽네 울 은찌
아 진짜ㅋㅋㅋ 애기야
자기야
사랑해
씨발 너 지금 뭐하나?
미쳤냐?
무슨 회의를 하는데 폰을 끄냐
전화 받아라 씨발아
나는 나쁜 여자친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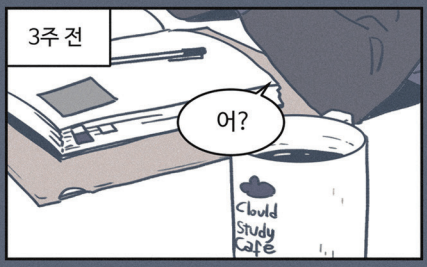
사랑싸움(?) 일대기
은지와 동현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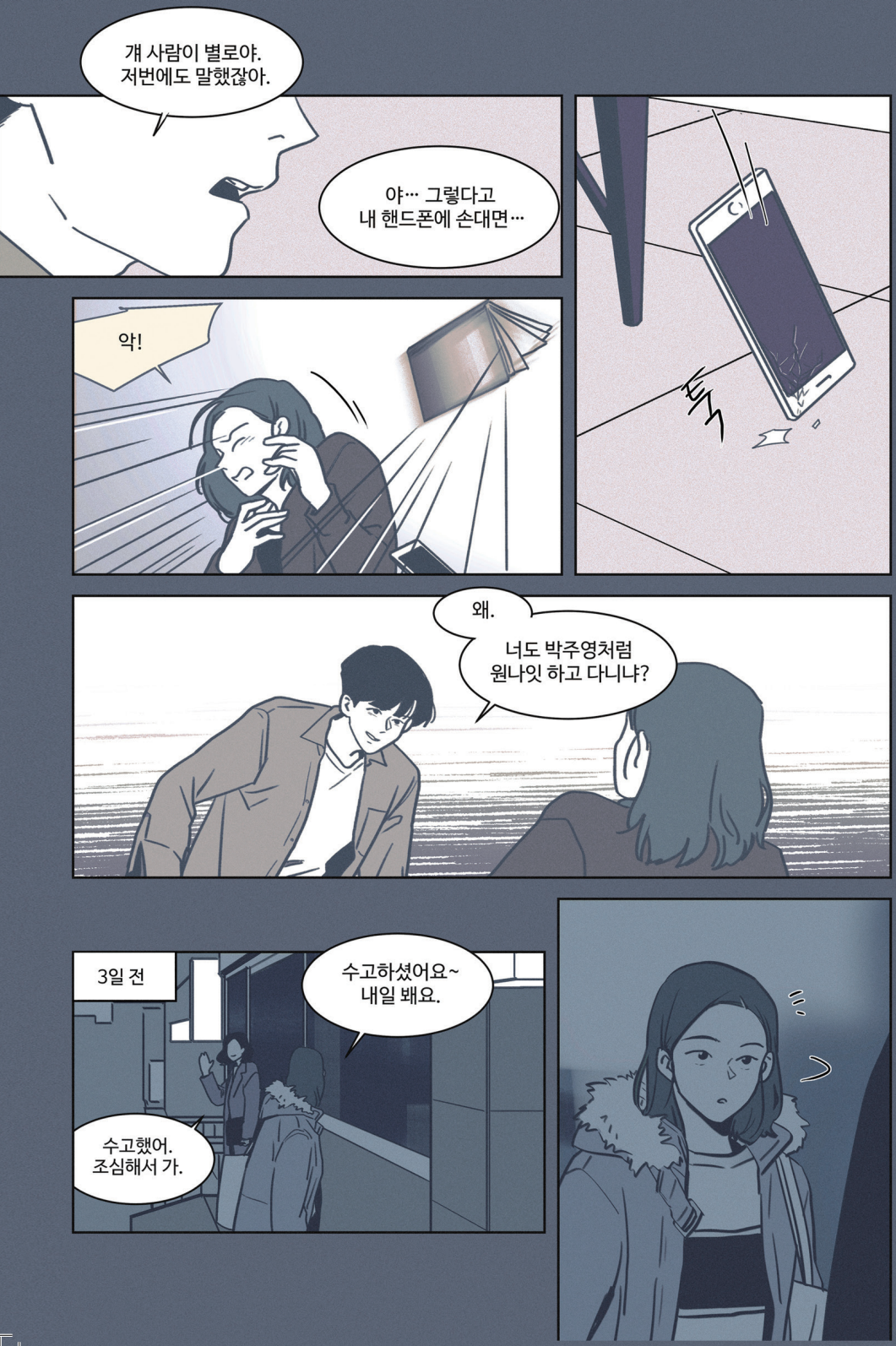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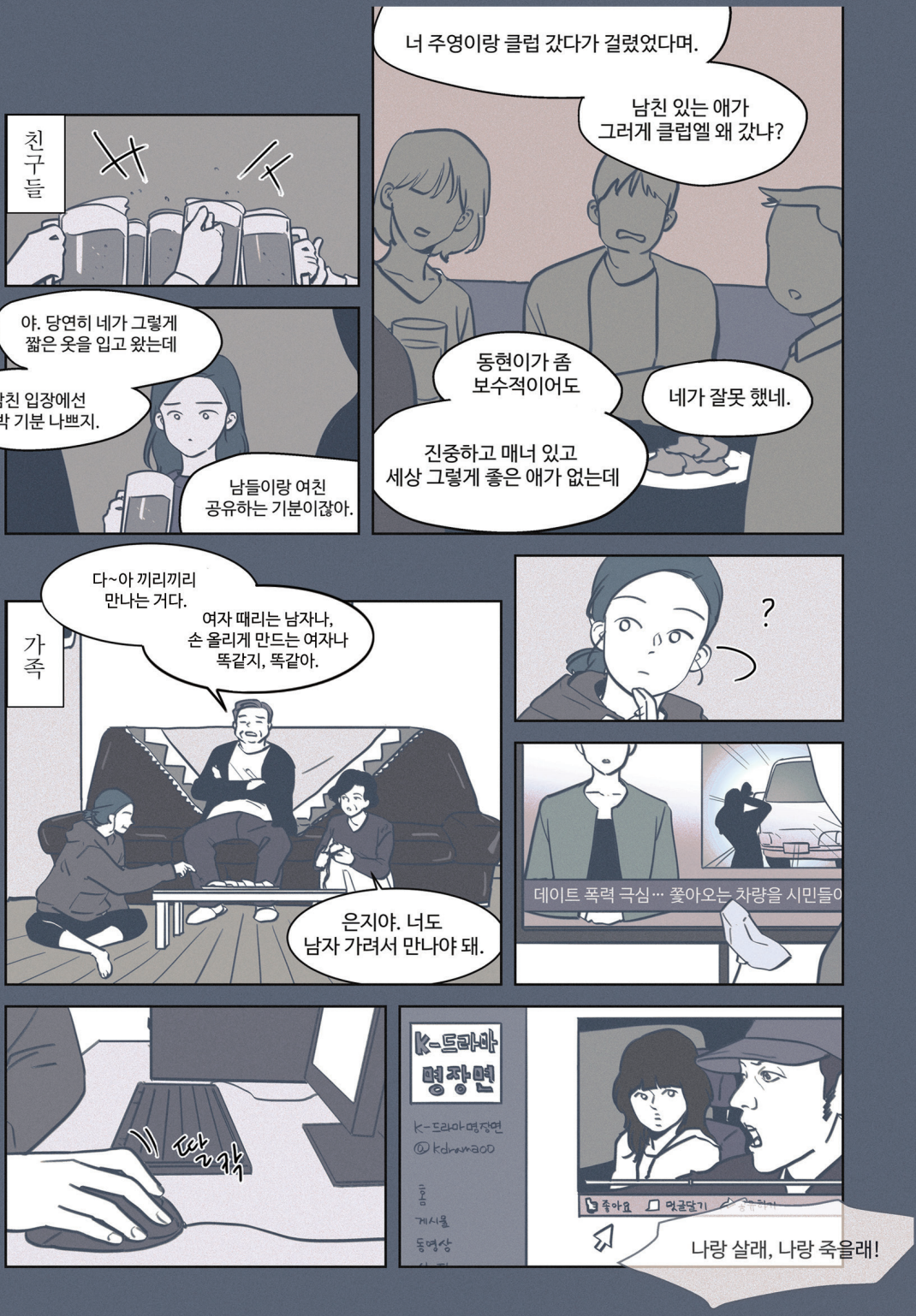



걔 사람이 별로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야… 그렇다고
내 핸드폰에 손대면…
악!
왜.
너도 박주영처럼
원나잇 하고 다니냐?
3일 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수고했어.
조심해서 가.


동현아!
전화 왜 안 받아.
그때 떨어뜨리고 고장 난 것 같아.
이것 좀 놓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냐?
전화 몇 통 한 줄 알아?
폰 안 되는 거 구라지? 너 바람났지?
이거 놓고 말해.
휙
아-!
꽈당
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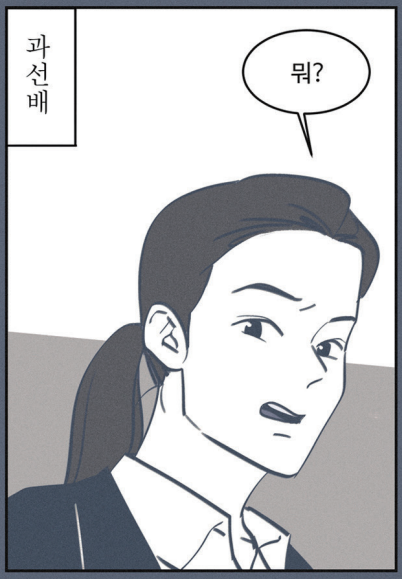

역시 짧은 옷은 좀 그렇지.
떴지?
남자친구니까 걱정도 될 거구.
은지의 해결방법!
위이이
위이이
나도 네 폰에 손 대고 싶어서 댄 거 아니야.
네가 박주영 같은 애들 만나고 다니니까 내가 자꾸 의심하는 거잖아.
Cloud Study Cafe
왜 날 의심하게 만들어.
아싸~
나 걔 안 만난 지 오래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늘
분명 그러려고 마음먹었다.
덜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
좋은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
미안해…
그런데 결국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너 주영이랑 클럽 갔다가 걸렸었다며.
남친 있는 애가 그러게 클럽엘 왜 갔냐?
친구들
야. 당연히 네가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남친 입장에선 대박 기분 나쁘지.
남들이랑 여친 공유하는 기분이잖아.
동현이가 좀 보수적이어도
진중하고 매너 있고 세상 그렇게 좋은 애가 없는데
네가 잘못 했네.
?
가족
다~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
여자 때리는 남자나, 손 올리게 만드는 여자나 똑같지, 똑같아.
은지야. 너도 남자 가려서 만나야 돼.
데이트 폭력 극심… 쫓아오는 차량을 시민들이
딸깍
K-드라마 명장면
K-드라마명장면
@kdrama00
좋아요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딸칵
요새는 뭐만 하면 여혐이네요
작성자 : ㅇㅇ
페북 상남자 만화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보면 남녀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별게 다 여혐이고 폭력이네요.
별게 다 여혐이고 폭력이네요.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심각합니다.
드르륵
AD
♥남친이 좋아하는
데이트 룩♥
Click
...
학생생활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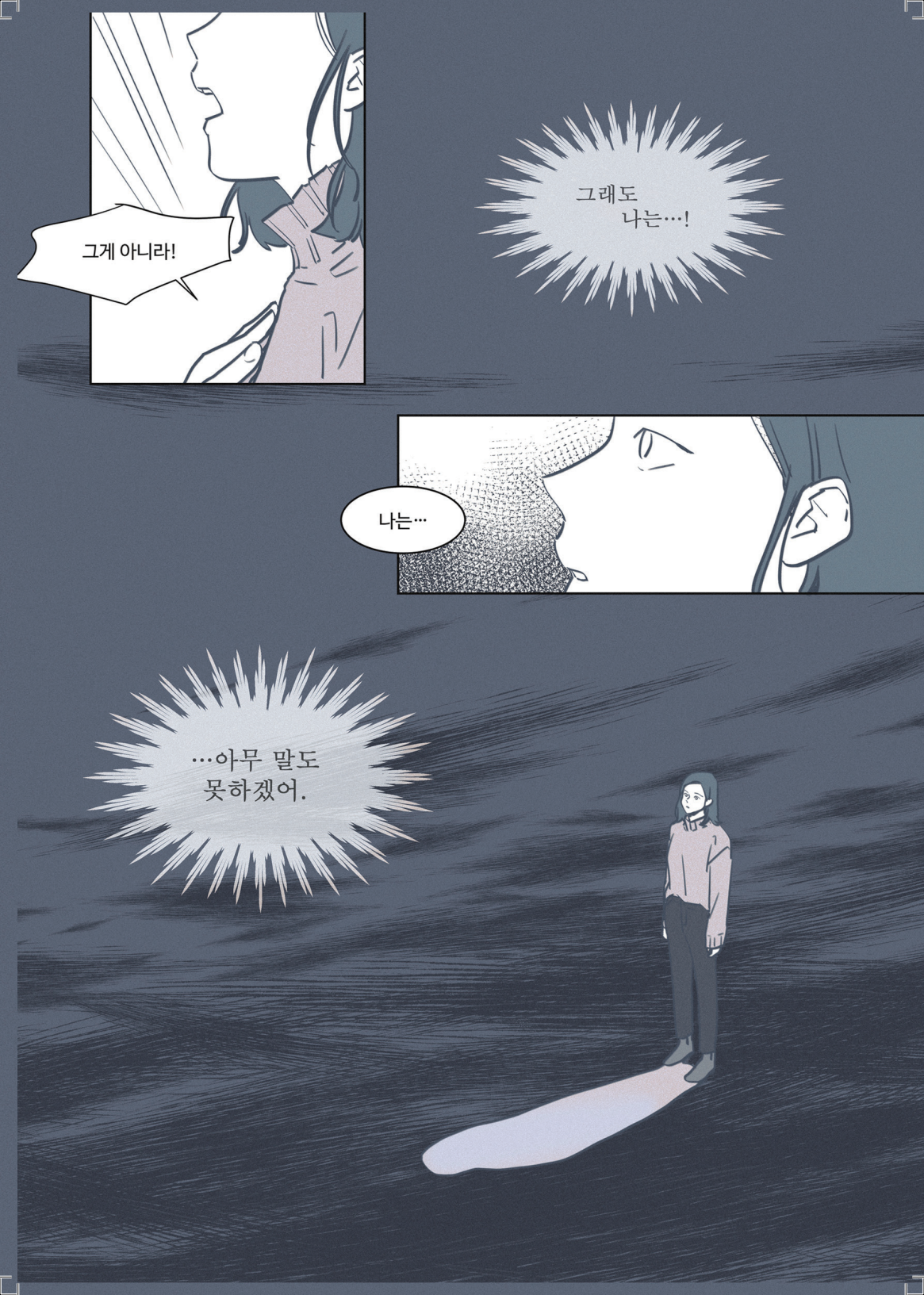

됐어.
이게 상담소까지 갈 일은 아니지.


과선배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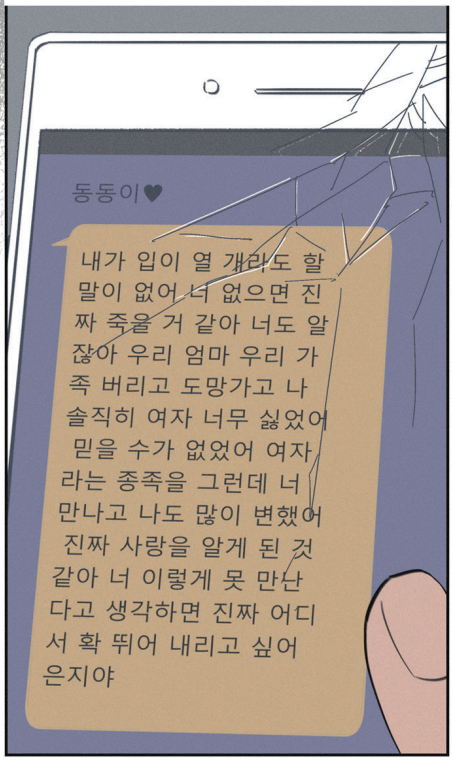

아니,
네 남자친구 뭔데 사람 옷차림을 관리해?
아, 그게
자기 인형이야? 핸드폰은 왜 던져?
그거 기물파손죄야 재물손괴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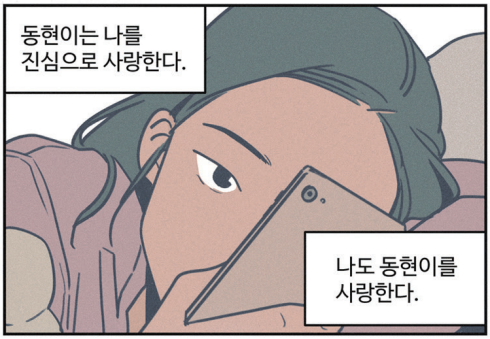

그리고 연락 좀 안 받았다고 사람을 밀쳐?


너 왜 안 헤어지냐?
그런 애랑 만나는 너도 좀 이상한 거 알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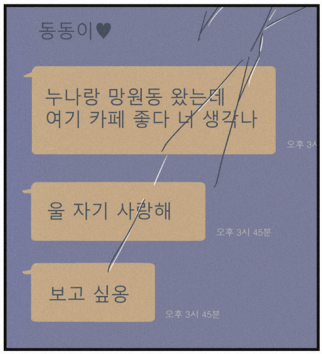

그래.
나는 이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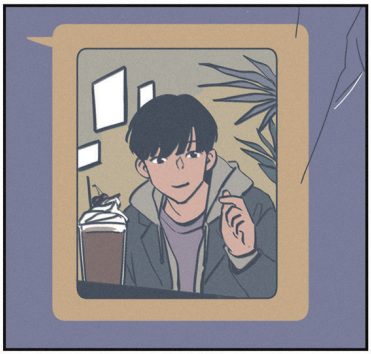

동동이♥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 없으면 진짜 죽을 거 같아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우리 가족 버리고 도망가고 나 솔직히 여자 너무 싫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 여자라는 종족을 그런데 너 만나고 나도 많이 변했어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 너 이렇게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디서 확 뛰어 내리고 싶어 은지야


동현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도 동현이를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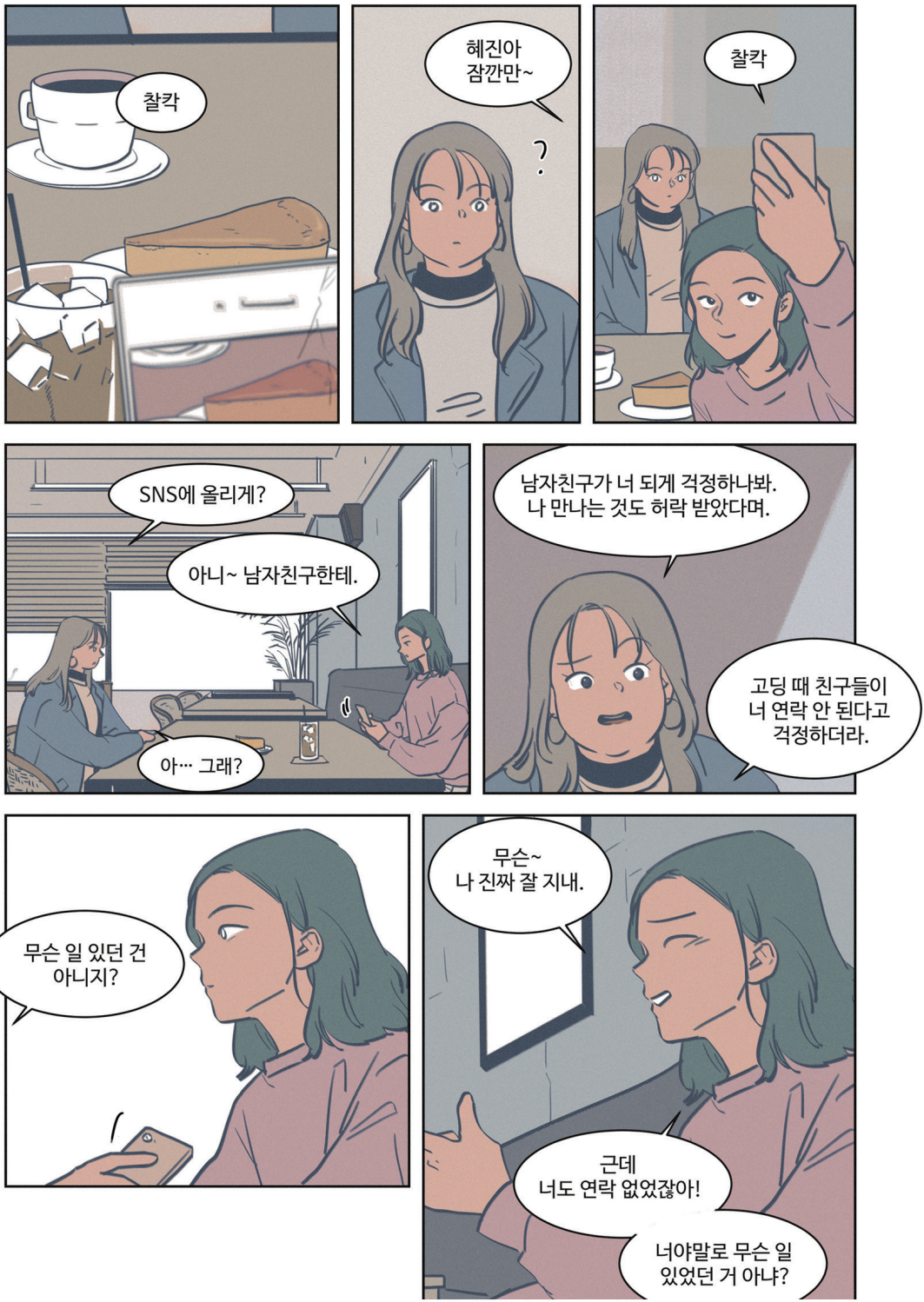

그런데 왜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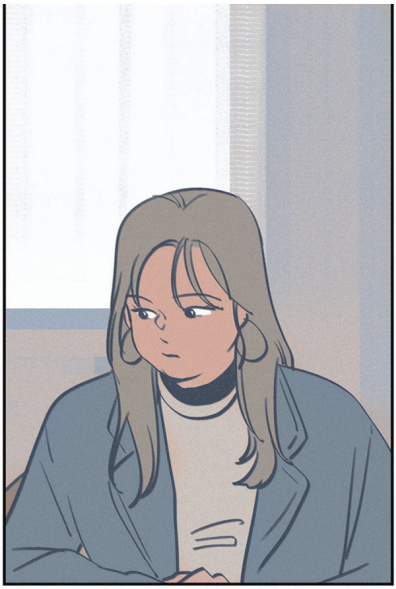

까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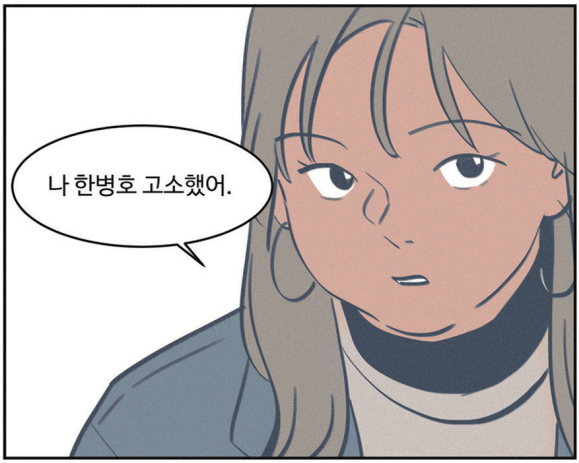

동동이♥
누나랑 망원동 왔는데 여기 카페 좋다 너 생각나
오후 3시
울 자기 사랑해
오후 3시 45분
보고 싶옹
오후 3시 45분




피식
나두 사랑해
톡
톡
이따 늦게라도 볼까?
커플 사이가 늘 좋을 수는 없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읏쌰!
지잉
지잉
으악! 깜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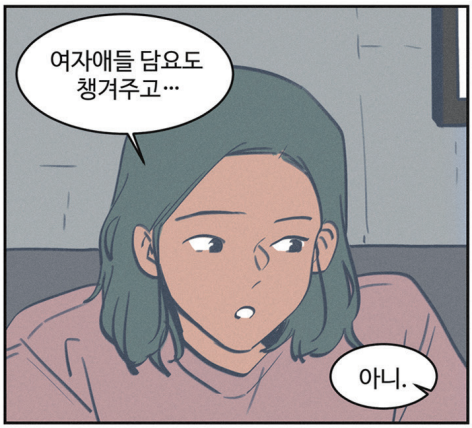

찰칵
혜진아 잠깐만~
?
찰칵
SNS에 올리게?
아니~ 남자친구한테.
아… 그래?
남자친구가 너 되게 걱정하나봐. 나 만나는 것도 허락 받았다며.
고딩 때 친구들이 너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
무슨 일 있던 건 아니지?
무슨~ 나 진짜 잘 지내.
근데 너도 연락 없었잖아!
너야말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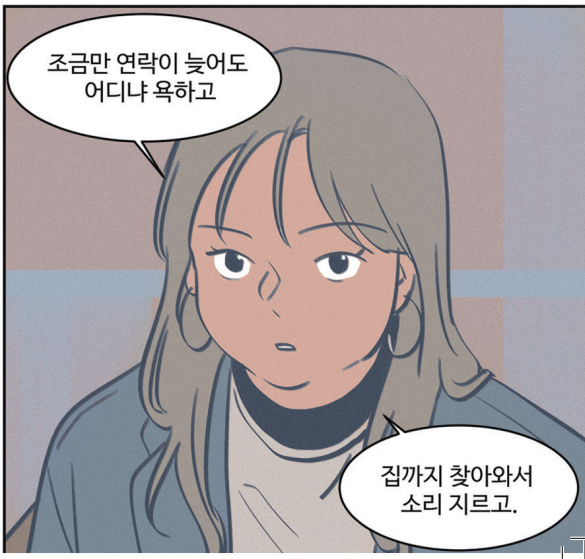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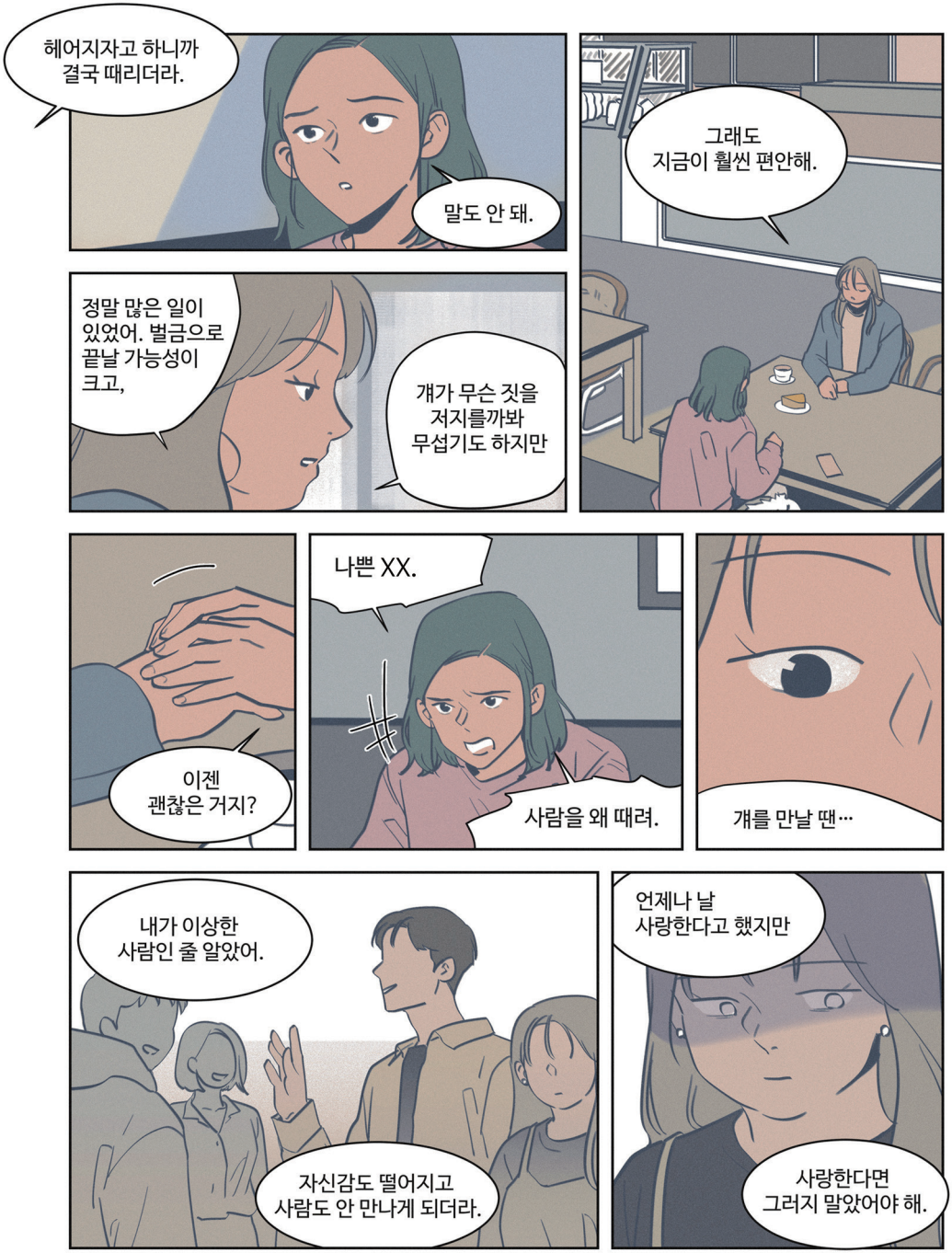

나 한병호 고소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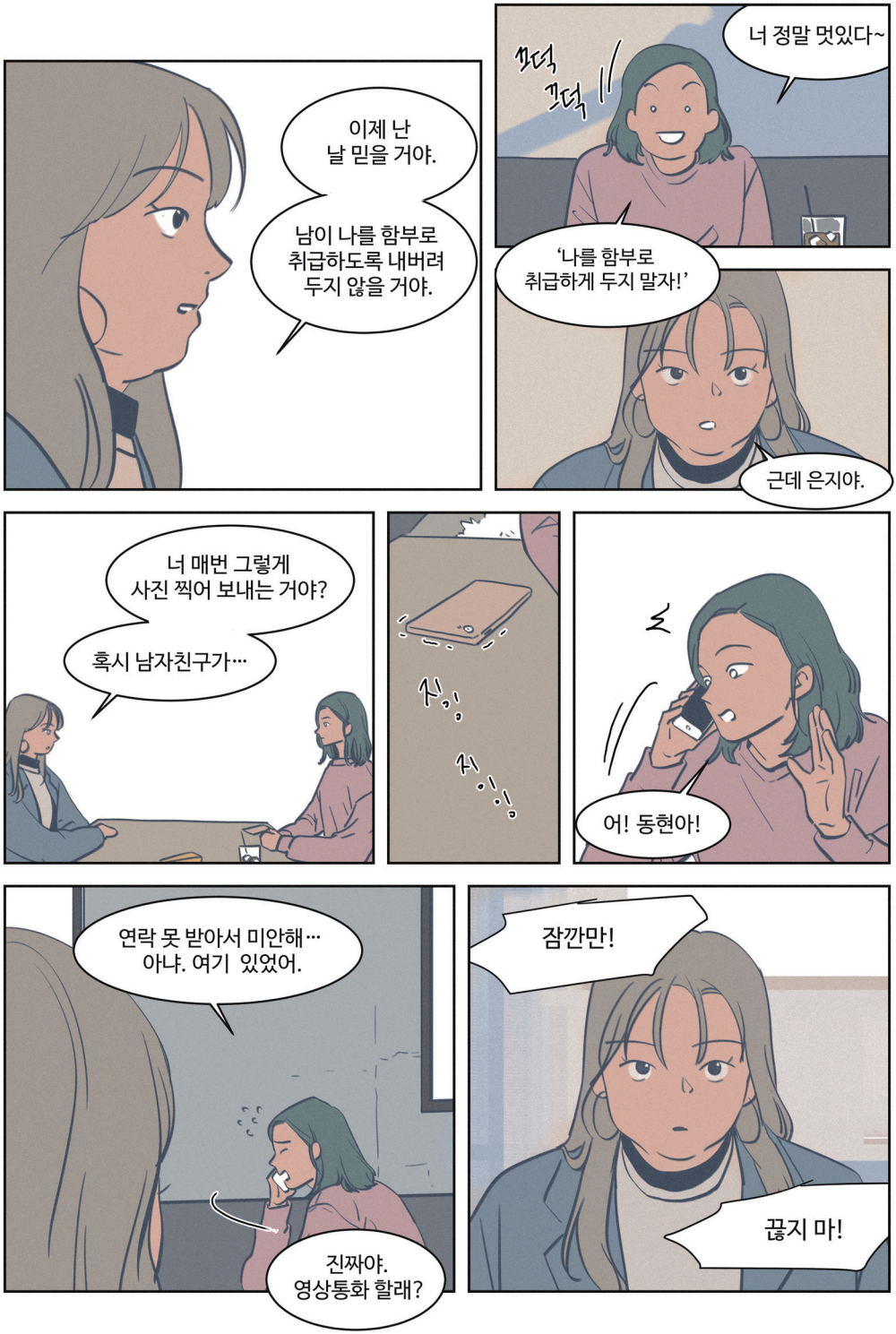

뭐?
네 남자친구잖아!


걔 고딩 땐
완전 괜찮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여자애들 담요도
챙겨주고…
아니.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어디냐 욕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결국 때리더라.
말도 안 돼.
그래도
지금이 훨씬 편안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걔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이젠
괜찮은 거지?
나쁜 XX.
사람을 왜 때려.
걔를 만날 땐…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더라.
언제나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한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해.


이제 난
날 믿을 거야.
남이 나를 함부로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정말 멋있다~
꼬덕
꼬덕
'나를 함부로
취급하게 두지 말자!'
근데 은지야.
너 매번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는 거야?
혹시 남자친구가…
어! 동현아!
연락 못 받아서 미안해…
아냐. 여기 있었어.
진짜야.
영상통화 할래?
잠깐만!
끊지 마!


미안, 나 먼저 갈게.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
다 나 때문…
은지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알지?
걔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네 탓이 아니야.
네가 느낀 게 맞아. 너를 믿어.
스윽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
삐-소리가 나면…
멍청
하…
하…。
동동이♥
재밌어?
오후 4시 53분
재밌냐고
오후 5시 01분
재밌냐고
오후 5시 01분
야 미친년아 재깍재깍
연락하랬지?
오후 5시 27분


이건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혜진아.
아직 카페야?
있지.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폭언과 욕설,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 그 밖에 정신적 괴롭힘, 갈취, 강제추행, 강간, 폭행, 가택침입,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돼요.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출처: 2016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통계1.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유형별 데이트폭력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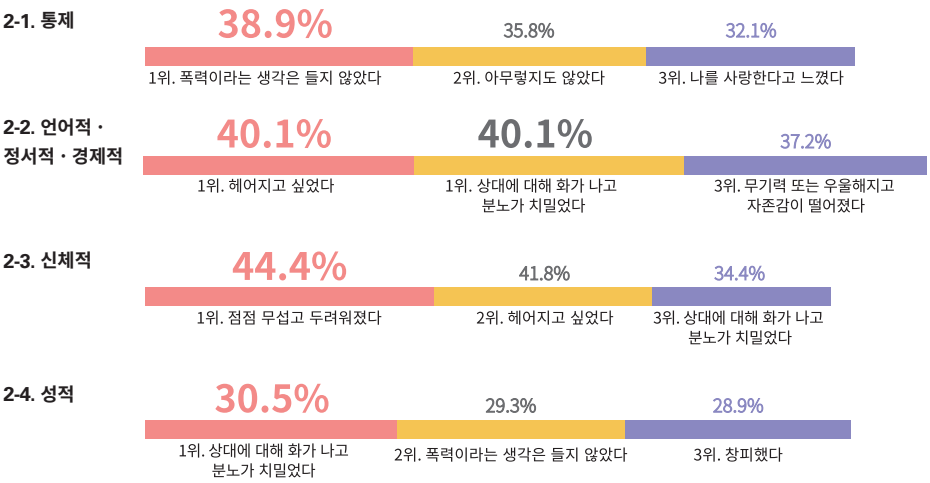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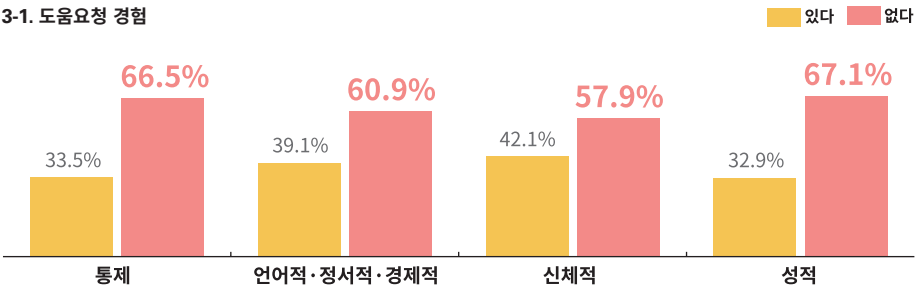
성적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통계2. 폭력 피해 직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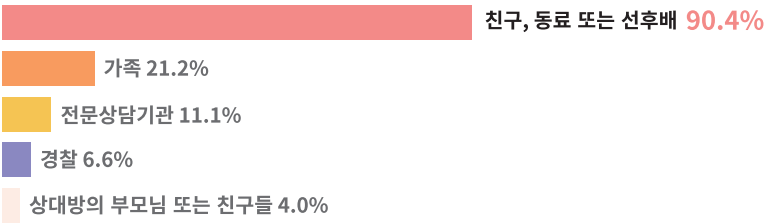


통계3. 도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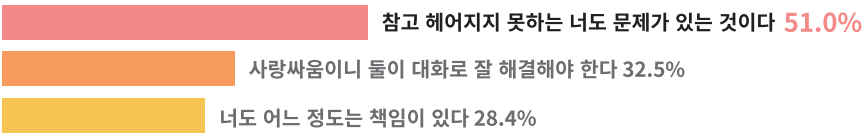
3-1. 도움요청 경험



3-2. 도움을 요청한 대상



3-3.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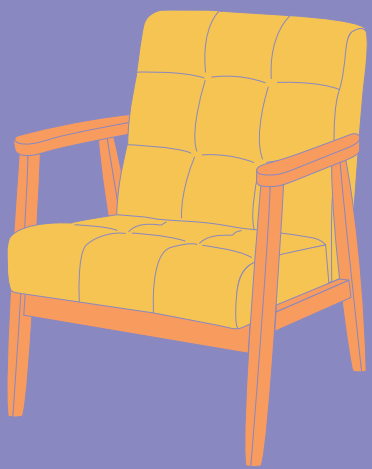


위 실태조사 결과는 데이트폭력이 '사랑'이란 감정과 행위, 관계 내에서 발생하기에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어렵고, 여전히 '사랑싸움' 쯤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이외에는 더욱 피해경험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폭력피해 직후 느낌을 질문한 문항을 통해 피해자가 분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랑'을 명목으로 폭력이 은폐되고, 이해받고, 정당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공적체계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움요청'과 관련된 응답에서도 드러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상황에서 사법제도보다 주변인(친구, 동료,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움을 요청한 상대의 반응이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둘이 잘 해결해야한다'라는 것은 데이트폭력이 '사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2장

이게 데이트폭력 맞나요?



F언니의 상담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인이 저와 의견이 엇갈리거나 다툴 때 크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갈등 상황에서 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니 많이 힘들겠네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애인이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하며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님에게 돌리고 있네요. 애인이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언어폭력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더니…

어제 애인과 싸우던 중에 뺨을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나 아픈 것도 모르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잘못했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며 문자를 보내네요… 실은 전에도 한 번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어서 용서해줬었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너무 화가 납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사람이라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요.

☞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다시 폭력이 발생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싸울 때마다 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애인에게 단호히 대하세요.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각서 등 서면으로 폭력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사과, 약속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사랑도 다른 무엇도 아닌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그 표현에 일관성이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 혼란스러움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난폭운전도 폭력인가요?

지난주에 애인과 차타고 가는 길에 잠깐 내려 길에서 다퉜는데, 기분이 상해서 혼자 가겠다고 했더니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는 같이 갈 수 없어서 싫다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저를 차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러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애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하지만 때린 적은 없고요. 그 뒤론 애인만 보면 아직도 그 때 생각이 나면서 무서워요. 이런 상황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있어야지만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화가 났으면 서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화난 이유에 대해 차분히 얘기를 하거나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차를 태워 난폭운전을 하는 상황에선 누구나 공포를 느낄 거예요. 거기에다 애인의 다혈질 성격을 아니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돼 사고라도 났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피해를 입혔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혹시 그날 이후 애인과 당시 행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의 정도로 따지면 님께 공포감을 준 애인의 행동이 신체적 폭력보다 절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을 애인한테 말하고, 다투거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진정시킬지,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약속을 할 것인지 함께 얘기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난폭운전 외에 님이 인식하지 못한 다른 폭력은 없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 돈을 달래요

1년 간 사귀었던 애인한테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저한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며 그 돈을 다 돌려 달래요. 너무 치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했어요. 그랬더니 1년간 자기가 쓴 돈이 1,366,000원이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받았던 물건은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물건 말고 다 돈으로 달래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다니, 속상하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때,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만큼 이별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별을 잘하는 것은 좋게 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함께한 시간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애인이 그동안의 데이트 비용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상황이네요. 누가 겪는다 해도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상대의 방식이 '찌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겠죠. 대신 나는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이별할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돈을 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지도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별에 대한 거부나 복수심 등의 감정으로 님을 괴롭히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님 자신도 이번 연애에 대해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애를 할 땐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요

2년을 만난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소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지우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애인이 "당연히 지웠으니 걱정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때 찍었던 영상 기억나? 나만 보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너 보고 싶으면 봐야지"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나 그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하진 않겠죠?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동영상 촬영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지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동영상을 빌미로 계속 만나자고 하거나 원치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범죄이면서 성폭력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상대의 협박사실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남기고, 문자나 메일 등으로 영상을 받았다면 잘 저장해두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지 않고 협박만 한다면, 보고 판단하겠다며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경찰이나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헤어지자고 한 게 충격이었을까요?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매일 카톡을 보내면서 "네가 날 떠날 수 있을 줄 아냐,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고,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 저 때문에 부모님이 위험해지실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놓아달라고 하는데도,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절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 헤어지자고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애인의 행동에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네요. 둘 중 하나라도 마음이 떠나면 하게 되는 게 이별입니다. 권리로 본다면 양쪽 모두에게 만나고 헤어짐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상대가 나를 놓아주어야만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상대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의 몫이니 그러한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행하는 스토킹은 이별폭력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게 충분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상대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지 않나요? 부모님은 님의 성관계 사실에 놀라시기보다는 혼자서 마음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많이 가슴 아파하실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상대가 부모님에게도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부모님께 빨리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찾아올 경우에는 경찰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스토킹과 협박 등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소를 결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찰 신고는 상대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확실한 방법이면서 이후 법적대응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인데…

만난 지 3년이 된 애인이 있어요. 만나온 시간들도 있고,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술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찾아오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밤새도록 괴롭혀요.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수십 번도 더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러고 나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네요. 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것만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같이 살면서 제가 옆에서 챙겨주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정말 달라질까요?

☞ 애인과 같이 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함께 추억을 쌓은 3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소중한 시간일 테지요. 그런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50년 정도 남았다고 볼 때, 그 세월 동안 수십 번이 아니라 몇 백번 술을 끊겠다는 약속이 번복되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체적 폭력이 없다 해도 술이 취했을 때 애인이 하는 행동은 폭력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달라져야죠.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또 다른 핑계거리가 등장했네요. 같이 사는 것은 애인의 변화를 확인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폭력을 당했어요

제 친구가 사귀던 사람한테 많이 맞았어요. 다들 헤어지라고 하는데 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폭력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애인과 만나야 한다고 약속에 나올 수 없다고 하고요. 특히 저 만나는 걸 그 애인이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헤어질 결심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일단 님이 친구의 폭행을 알게 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친구 분이 애인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친구 분은 헤어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친구 분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해져버린 폭력적 환경에서 나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애인과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 쉼터를 이용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분이 쉼터 이용과 더불어 전문기관과의 지속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별을 결심하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몇 달 전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런 게 처음이라 너무 로맨틱하고 좋았어요. 그 뒤로도 자주 선물해주고, 잘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 중에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모텔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긴 안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길 못 믿는 거냐며 섭섭하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날 원치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네요. 이용당한 거 같아 너무 화가 나요.

☞ 데이트 비용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면,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비용을 내는 쪽이 관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쪽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님이 받기만 하는 상황이 되니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며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성이 직·간접적으로 데이트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되곤 합니다. 흔히 이성애관계에서 남성이 데이트비용을 부담하고, 여성은 그 비용만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쓴다는 식의 얘기도 그러합니다.

상대가 "자길 못 믿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폭력입니다. 이용당한 거 같은 화가 나는 감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님 스스로도 원치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수많은 것들을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데이트 관계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한 사람이 부담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안에서는 폭력이 발생하기도 쉽고요. 데이트 상대와 데이트 계획이나 스킨십 등 모든 과정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

우연히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사귀자고 했어요. 지금은 누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된 지 세 달 정도 됐어요. 여러 번 만났지만 아무래도 우리 둘은 안 맞는 거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어버리겠다고 하네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면 정말로 저 때문에 죽을까봐 불안하고 겁나요.

☞ 연애의 시작도 상대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서였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상황이네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아껴주어도 부족한데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헤어지자는 말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불안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헤어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셨을 것 같은데, 그 때마다 상대는 죽지는 않고 자살 위협만 하지 않았나요? 상대는 자신의 목숨을 갖고 흥정하는 사람이거나, 죽겠다는 말에 님이 마음 약해지는 것을 알고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살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잘못이지, 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가 죽는 것이 두려워 못 헤어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갖고 흥정하는 무책임한 사람보다는 서로의 가치를 알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따라다니고, 계속 저를 좋아한다니까 사귀게 된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8개월 전에 헤어지자고 했지만 지금도 전 애인은 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면 전 애인도 마음 정리가 될까 싶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후부터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학교(직장)에 소문을 내고, 친구들한테도 제 욕을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저에게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그때는 "알아서 해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결국 저를 때렸어요. 같은 학교(직장)를 다니는 전 애인이 두렵고 괴로워서 학교(직장) 상담실을 찾아갔는데, 상담원은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바람을 피워서 상심이 컸겠다면서 전 애인을 옹호하며 폭력의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요?

☞ 도움을 받고자 찾아간 상담실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상담자를 만나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상담원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지만 학교(직장)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교수(상사)나 학교(직장) 내 기구의 개입을 요청해서 상담센터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고, 학교(직장)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학교(직장)에 관련 학칙(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더불어 자살, 자해 협박은 적어도 때리지는 않으니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빌미로 관계를 통제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존재나 목숨도 가볍게 생각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3년을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몇 개월 전부터 협박을 했어요. 진정을 시키려고 다시 만났다가, 괜찮아지면 헤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며칠간 연락을 안 받았더니 찾아왔고, 문을 안 열어줬더니 담을 넘어왔어요. 큰 일 날 것 같아서 경찰을 불렀는데 "연인사이냐"라고 물어서 저는 "아니다"라고 했고, 걔는 "그렇다"라고 했어요. 경찰은 피식 웃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그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 후부터 더 심해졌죠. 어쩔 수 없이 걔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엄마는 "나도 내 아들이지만 버겁다"라며 "잘 달래라"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의사를 밝혔더니 경찰은 "남자 인생을 망칠 거냐"라고 해요. 경찰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고 분노스러웠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적입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지만 경찰의 반응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던 상황은 전 애인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택침입 등으로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고소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신고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경찰의 태도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따라가겠다"라며 경찰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2차피해가 발생한다면 청문감사관실에 알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경찰의 적절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도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걸 알아채면 전 애인도 지난번처럼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상애인열전

찌질마초 애인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Q: 연애하면 다른 인간관계도 유흥도 다 접어야 하는 거야? 술을 과하게 마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바람피우는 것도 아닌데, 애인이 술 먹거나 클럽 가지 말라고 난리야. 저번에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클럽 갔었잖아. 싫어하는 거 아니까 가기 전에 미리 얘기도 했었는데, 다음날 화를 내며 이대로라면 나를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며,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 있지? 하지만 나한텐 다른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내 취미생활도 있는 거잖아. 내가 더 화가 나는 건 애인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술마시고 클럽 가는 건 사회생활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이제 자기 여자니까 절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결혼해서도 이럴 거냐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애인이 그토록 싫어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이 좋아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 마음이 복잡해.

A: 내 애인도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해서 자꾸 끊으라고 하는데... 계속 담배 피우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싫어하는데 계속 피우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고. 흡연은 내 삶의 일부인데, 끊으라고 강요하고 내 마음까지 의심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 "나야, 담배야? 둘 중에 선택해!"라는 식이야. 데이트 할 때는 담배 안 피고, 줄여보는 걸로 합의를 보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남아있긴 한 것 같아.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어떤 부분이 수용이 안 된다면 헤어지는 게 맞겠지. 하지만 담배를 피거나 클럽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 중요한 건 상대가 싫어한다는 건데,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면 좋겠어. 너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고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네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거니까.

B: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꼭 네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봐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네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네 자신이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노는 게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 여성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위 '조신함'이라는 '여성다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 네가 남자여도 그렇게 말했을까?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필요 없어. 성차별적 태도라고 분명하게 문제제기해. 이대로 가다간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라며 더한 소리를 읊어댈 것 같아.

복장 단속하는 선도부장 애인
"다른 사람이 너 보는 거 싫어"

Q: 오늘 애인과 오랜만에 주말데이트를 하게 됐어. 새로 산 치마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지. 그런데 만났을 때부터 애인 표정이 안 좋더니 급기야 화를 내는 거야. "옷이 그게 뭐냐며, 차라리 다 벗고 다니라"며 화를 내는 거 있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든지 옷을 새로 사라며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결국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어. 애인이 좀 보수적인 건 알았지만, 외출하기 전에 자기한테 옷차림 검사를 맡으라고 하고 점점 간섭이 심해지는 것 같아. 애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싫고 걱정이 돼서 그런대. 처음엔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으면서까지 얘를 만나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A: 외출 전에 자기한테 옷차림 검사를 맡으라니... 자기가 무슨 선도부장이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싫고 걱정이 된다니... 애인이 평소에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왔는지 짐작이 간다. '야한 옷'이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어. 19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 학교에서 복장규제를 하는 것과 같이, 애인이 옷차림을 단속하는 건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니야. 옷을 입는 사람인 너와 너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라고 강요하고, 맞추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과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일까? 지금은 옷차림이지만, 나중에는 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지도 몰라. 어떤 생각으로 네 옷차림을 단속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애인이 가진 성차별적 신념 등 잘못된 생각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해. 상대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따를 필요 없어. 너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분명하게 말해.

B: 데이트 한다고 예쁘게 꾸미고 나간 건데 속상했겠다. 나도 애인이 내 귀가시간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로 구속이 심한 편이야. 처음엔 나를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고맙고, 나밖에 모르는 애인을 보며 안심이 되기도 했어. 매번 걱정을 끼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애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요즘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애인의 말이, 부탁이 아니라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협박처럼 느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인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 같아.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서로의 차이가 존중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 나는 이제 내 마음과 상황에 집중하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 너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추지 마. 너를 불행하게 하고 둘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니까.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 애인
"나만 바라봐"

Q: 회사에서 신입이라 여러 가지로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애인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번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꺼 놓았더니, 그 사이에 부재전화가 50통이나 온 거 있지? 무슨 일 생겼나 싶어 놀라서 전화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진동으로 해놓으면 되지 왜 꺼 놓았느냐, 회의한 거 맞느냐"며 의심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매일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떨어져 있게 되니 애인 집착이 장난이 아니야. 뭐하고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저번에 보니까 휴대폰도 은근슬쩍 검사하더라고.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회사로 데리러 온다는 거야. 솔직히 예전에는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좋았는데, 야근해야 하는 날에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온다니까. 저번 회식 때는 기다리는 애인 때문에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나온 거 있지? 힘든 상황을 설명해도 변명으로 취급하고 이해를 못해. 이제는 정말 숨 막혀 죽을 지경이야.

A: 스토커가 따로 없다 정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애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이해의 문제도 아니잖아. 당연히 각자의 생활과 상황을 존중해야 하는 거지. 더군다나 휴대폰 검사하고 누구랑 있는지 물어보면서 의심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행동할 때야. 너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알려고 하고 네 삶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행동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B: 전화하거나 만나는 시간 등 규칙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작게는 쇼핑하는 것도 애인한테 얘기하는데, 애인은 혼자 알아서 하고 연락도 잘 안하는 편이라 섭섭할 때가 많았어. 그 문제로 싸우기도 해서, 해결방법을 찾다가 규칙을 정했지. 주중에는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바쁘면 문자로라도 안부를 전하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만의 '근황토크' 시간을 갖기로 했어. 처음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했는데,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정해놓은 규칙의 사이사이를 채워갔고, 그러면서 전보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훨씬 커진 것 같아. 사실 지금 네 애인의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변화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외모 지적하는 심사위원 애인
"살 좀 빼"

Q: 나 많이 뚱뚱해? 애인이 자꾸 외모 가지고 구박해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밥 먹을 때마다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너 정말 잘 먹는다"고 비꼬고 구박한다니까. 몸무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싶어. "돼지"라고 부르고, "뚱뚱해 보인다", "화장 이상해" 등등 상처받았던 말들을 생각하면 셀 수도 없어. 원래는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만날 때마다 오늘 또 지적을 당하진 않을까 늘 조마조마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저번엔 "그렇게 내가 맘에 안 드는데 왜 만나?"라고 따져 물으니, "애인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지, 관리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며 다 나를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힘든 걸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A: 많이 속상하겠다. 나도 애인이 자꾸 살 빼라고 구박하는데... 자기는 체중관리 전혀 안 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외모에 신경 써야지"라고 덧붙이는 거 있지? 저번에는 얼굴에 난 솜털 갖고 "수염 기르냐"며 놀리기까지 하는 거야. 완전 모공 하나하나까지 지적할 기세야. 처음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또다시 외모 갖다 뭐라고 하면 그만 만나겠다고 선포했어.

B: 가뜩이나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여성의 몸을 재단하고 규율하는 사회인데, 애인까지 그러한 잣대로 나를 평가한다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여자 외모를 가지고 "제 점수는요 " 하면서 순위 매기는 사람들 때문에 "외모는 여자의 경쟁력"이라는 성차별적 논리가 점점 강화되는 거야. 성차별적 행위를 너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인 척하는 애인의 말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 없어. 자신감을 갖고 애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이 좋고 만족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애인에게 나를 정말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면, 지적이나 평가보다는 존중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파파라치 애인

"우리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Q: 너희들 혹시 애인이랑 성관계 영상 찍은 적 있니? 사실 애인이 요새 성관계를 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서 너무 힘들어. 사귄 초반부터 좀 문제가 있긴 했어. 속옷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도 졸라서 한두 번 보내준 적은 있었거든... 그러고 얼마 후에 애인 휴대폰에서 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해서, 크게 싸우고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적이 있었어. 내가 싫다고 하니 한동안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난리야. 애인은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자기만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성관계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고 혹시나 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애인이 몰래 사진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진이나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해. 내가 괜한 의심에 유별나게 구는 거야? 계속 이 문제로 다투게 되니까 뭔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A : 사실 나도 전에 만나던 사람이 성관계 영상 찍자고 한 적이 있었어. 그걸 찍어서 뭐 할 거냐고 따지니까, 자기가 야동 보느니 나랑 하는 거 보는 게 좋지 않으냐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 있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끔찍하던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욕이나 해소할 성적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B : 나는 서로가 동의한다면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념으로 커플 누드사진 찍는 것처럼 추억으로 남겨놓는 거지. 하지만 네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 더군다나 동의도 안 받고 몰래 찍은 적이 있다니 믿고 만나기 어렵겠다. 애인이 계속 너의 의사를 무시하고 요구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C : 자기만 보겠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니? 더군다나 몰래 나체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니 그건 범죄야. 그리고 서로 좋을 때야 괜찮을 수도 있지만, 헤어지고 나서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 협박하거나 파일 공유 사이트 같은 데 올리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진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삭제하게 해. 솔직히 나는 둘이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짐승 애인
"참을 수 없어"

Q: 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내가 먼저 키스하기도 하고, 전보다 스킨십에 대해 마음이 열리긴 했지만, 성관계를 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어. 근데 애인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막상 해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이럴 거면 나랑 친구로 지내지 왜 사귀냐", "너만 보면 안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의 말로 성관계를 계속 조르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 유별나게 구나?' 싶으면서 자책감도 들었던 것 같아. 지난주에는 애인이 옷만 벗고 같이 자자고 했는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숙박업소에 갔었어. 씻고 누워서 애무도 하고 했는데, 애인이 갑자기 야동 같은 걸 틀더니 "못 참겠다"며 자위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참으면 병 된다"고 한 번만 해보자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할 틈도 안 주고 억지로 막 했는데 엄청 아팠어. 내가 막 우니까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밉고 싫은 거야. 그 뒤로 연락도 안 받고 안 만나고 있어. 연애하는데 스킨십이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

A: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많이 놀라고 힘들었겠다. 애인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 무엇보다 네 마음이 중요한데...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다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할 것 같아.

B: 네 동의도 없이 강제로 한 거잖아.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폭력으로 신고했으면 좋겠어. 못 참겠다고? 참으면 병 된다고? 발정 난 짐승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해!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해! 다시 만날 생각 하지 마!

C: 연애할 땐 성적의사소통이 중요해. 사람에 따라서 성적 욕구와 취향도 다르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성행동도 달라.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함께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지, 한 쪽의 욕망과 의지만을 강요해 결정하는 건 성폭력이야. 애인을 다시 만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성에 대한 너의 욕구와 생각을 정리해보고 파트너와 어떻게 소통하고 실천할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어.

콘돔 거부하는 막가파 애인
"내가 다 책임질게"

Q: 나는 이성커플인데, 애인이 피임을 안 해서 고민이야. 콘돔을 끼면 느낌이 안 온다고 싫어하고, 질외사정 하면 된다며 밀어붙이는 식이야. 그렇지만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잖아. 피임약도 먹어봤는데, 약이 몸에 안 맞는지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더라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편인데, 월경이 늦어질 때면 너무 불안해. 정말 이러다 임신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애인은 내가 화를 내도 "임신하면 결혼하면 되지, 내가 다 책임질게"라며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는 식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피임을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A: 임신하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이야기 하다니 정말 무책임하다. 원치 않은 임신을 결혼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정말 문제야.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수술 비율이 비혼 여성보다 높은 거 알지? 결혼 이후에도 피임을 안 해서 계속 임신이 되면 그 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지금 서로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피임은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야. 네 몸의 주인은 너야. 네 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상대에게 미뤄두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 피임문제를 포함해서 성행위, 그리고 관계 전반에 있어서 과연 네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인이 계속 피임을 거부하며 너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다.

B: 우린 동성커플이고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꼭 사용하는 편이야. 솔직히 매번 챙긴다는 게 귀찮은 일이지. 하지만 콘돔은 피임뿐만 아니라 세균감염이나 성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커플도 항상 구비해두고 있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워낙 손에는 세균이 많고, 질이나 항문은 상처가 나기 쉬우니 피임과는 별개로 콘돔을 꼭 사용해야 해. 요즘 콘돔은 사용 부위에 맞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와. 나는 애인과 인터넷이나 섹스용품점에 가서 콘돔이나 필요한 용품을 고르는데, 성관계를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고 성관계 만족도도 높아졌어. 나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웠는데, 연인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았어. 애인도 네가 불안한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고 자기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야. 우선 네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피임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좋은 점과 콘돔 사용을 꺼리는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피임도 성관계의 일부인 만큼, 애인이 피임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너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보는 건 어때?

피해자가 말하는 가해자

"같은 말을 해도, 소리를 질러요."

"제 앞에서 제 주변사람 욕을 계속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되려 화를 내면서 '너를 걱정해서 그래'라고 했었거든요."

"'네가 없으면 아무도 자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고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더라구요."

"'나 원래 안 그런데 너 때문이야.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물건을 던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말했는데, ‘내가 진짜 미안하고, 다신 안 그럴게’라고 말하지만 또 반복하고, 또 던지고.”

“술자리가 되게 잦은 직업이었는데, 계속 ‘몇 시에 어디냐, 나와라. 너 거기서 그렇게 회식 자리 가지고 있으면 창녀랑 다름없다’, 이런 식의 말을 자주 들었어요.”

출처: 2017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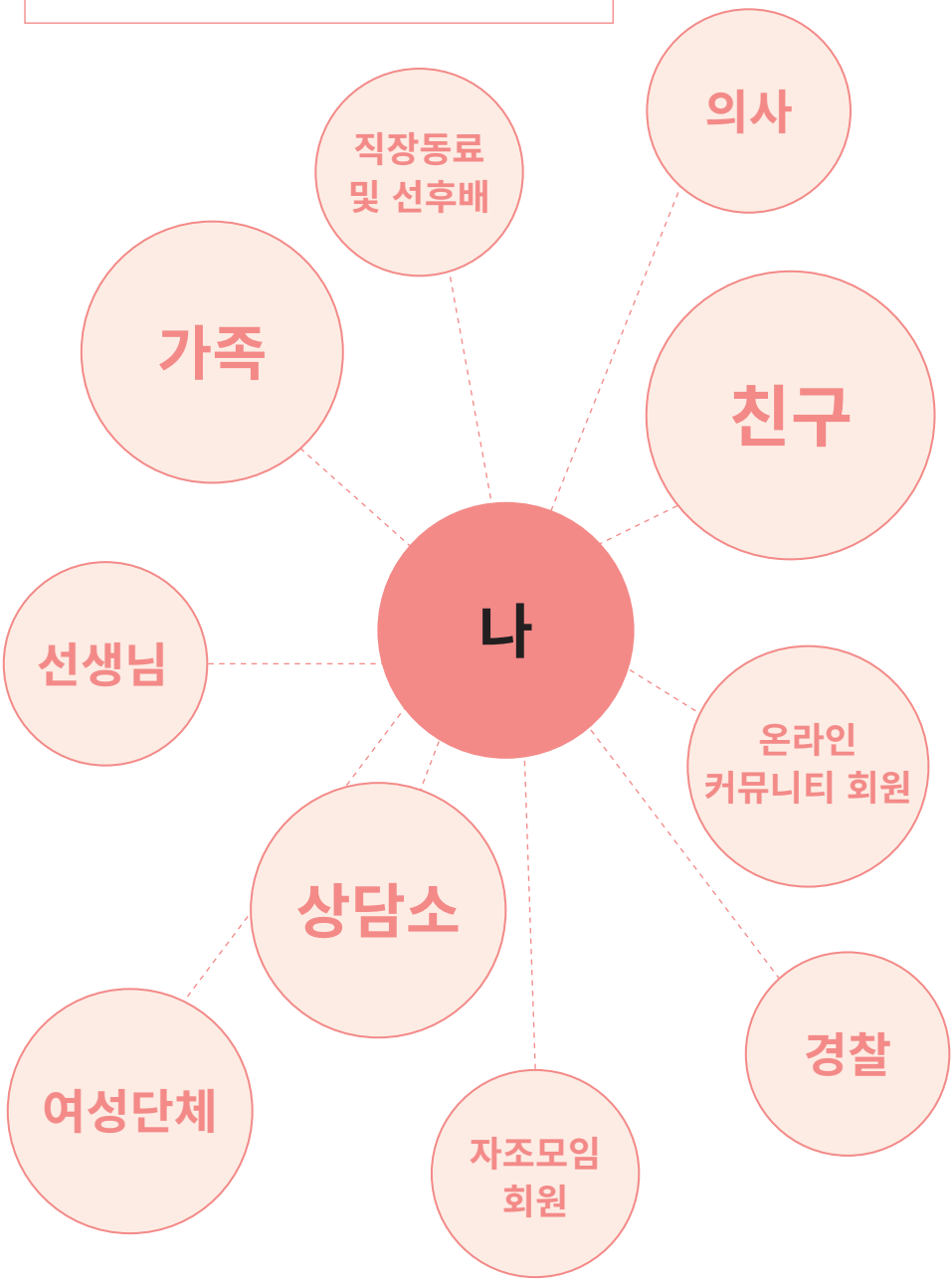
3장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지지자원 모색하기



내가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나를 비난하지 않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겹게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이 되어줄 거예요.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지지자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며 나를 감싸고 응원해 주는
사람, 때로는 조금 직설적이고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 사람, 내가 가해자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지 않도록 꾸준히 오랫동안
믿음을 건네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기 판단을 강요하거나,
자기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쉽게 비난하거나,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주어 오히려 나를 두 배로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지지자원이 되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담소 찾아가기

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2263-6464~5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 오후 1시-2시) * 전화상담을 통해 예약 후 면접상담 * 의료 및 법률지원 가능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의료 및 법률지원 가능 * 치유회복프로그램 및 쉼터운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3층	*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 의료 및 법률지원 가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전화 및 면접상담 * 의료 및 법률지원 가능
서울 1366	02-1366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 365일 24시간 운영 * 쉼터 및 상담기관 연계

2. 상담소에서는

상담소와 함께 피해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신고 및 소송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사법제도 외적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범위·내용·방법은 상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법제도 이용하기

1.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사건일지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폭력, 협박의 증거물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게 한 장,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한 장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 가는 걸 추천해요.

(경찰)신고 및 상담 기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신고기록과 상담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2. 경찰 신고

· 긴급상황에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초동조치를 요구하세요.

가능한 초동조치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 (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 배부 출처: 경찰청, '여성폭력근절 100일 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7.7.24.

· 신고 당시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알아 두고 신고 과정에서의 모든 대화 혹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연인사이에 해결 할 문제', '상대에게 더 잘 해줘라',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 등의 부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신고 당시 진술할 때,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여경 진술담당관 배치, 분리된 공간 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변보호조치 내용

신변경호 / 보호시설 연계 / 주거지 순찰 강화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위치추적장치 제공: 스마트워치(웨어러블기기) 지급 / CCTV 설치 / 사후 모니터링 / 신원정보 변경 출처: 경찰청, '여성폭력근절 100일 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7.7.24.

·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폭력, 모욕적 언사,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의 접근, 전화·문자 등 연락 및 접촉을 방지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인격권 침해금지를 핵심으로 하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시 재산상 강제수단이 사용되거나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소 및 수사, 재판

· 신고는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정식으로 피해 수사기관에 접수해 법적 해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고소할 경우, 사건이 가해자 거주지 또는 피해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옮겨지기 때문에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려면 치안센터·파출소가 아닌,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신고 당시에는 간단히 신고이유를 설명하고, 고소여부를 결정한 후 피해내용을 정리, 준비해서 경찰서를 재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를 추천해요. 경찰의 요청에 무리하게 따르지 않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진술 날짜와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요.

·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기 전에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중요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나 증거에 관해 자세히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4~6시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 법률상담 격주 월요일 오후 4~6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 전국 지부 운영 * 법률상담 및 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 1층 102호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의료 및 법률지원 등 * 성폭력, 가정폭력 전담 (성적 폭력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센터)	1577-129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110호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법률지원, 심리상담, 비용 등 다양한 지원 * 고소 진행 시, 범죄피해 인정된 경우

잠깐!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고소의 의미와 효과

·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 행사하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데이트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시키고,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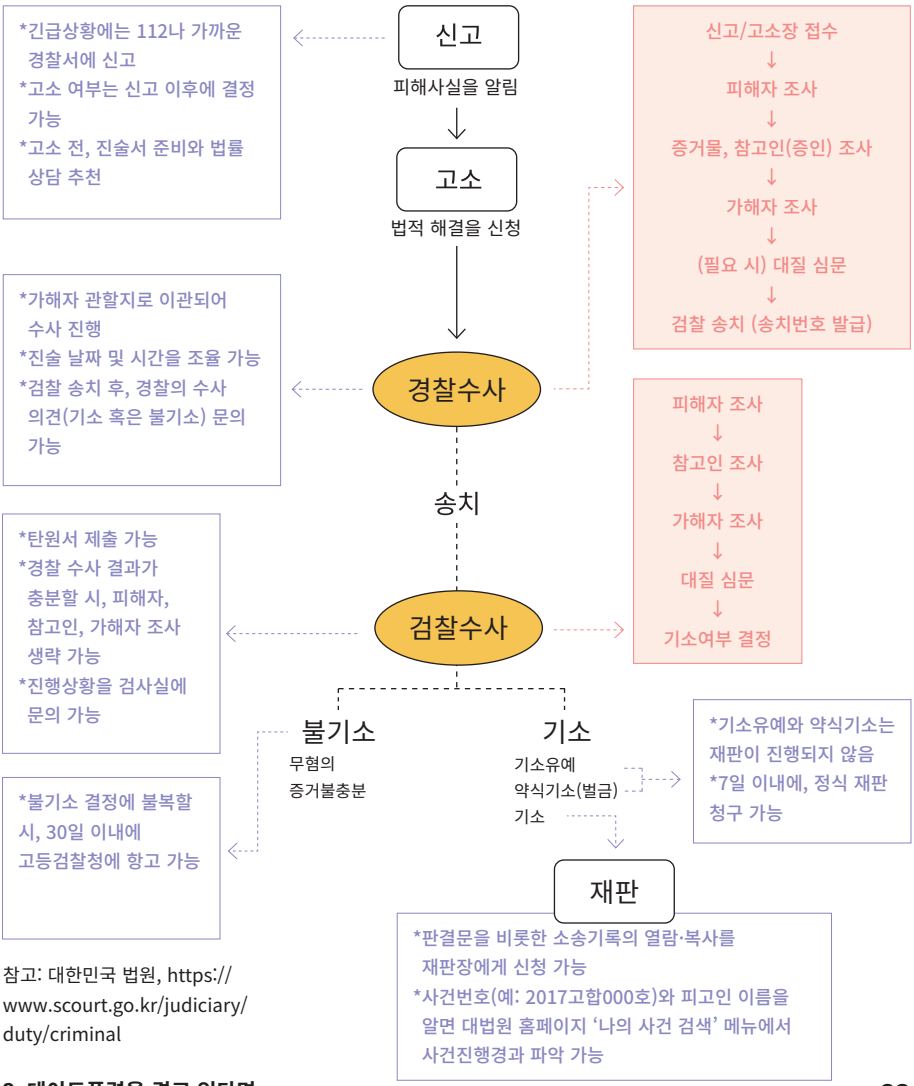
· 경찰, 검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 수사, 재판 기간이 길어져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칠 수 있다.
· 협소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미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고소를 하고 싶은지, 법적으로 해결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상담소 등 조력자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수사 및 재판 절차

형사소송

데이트폭력은 (2017.11월 기준) 현행법상 형법에 근거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감금,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각각의 피해를 다루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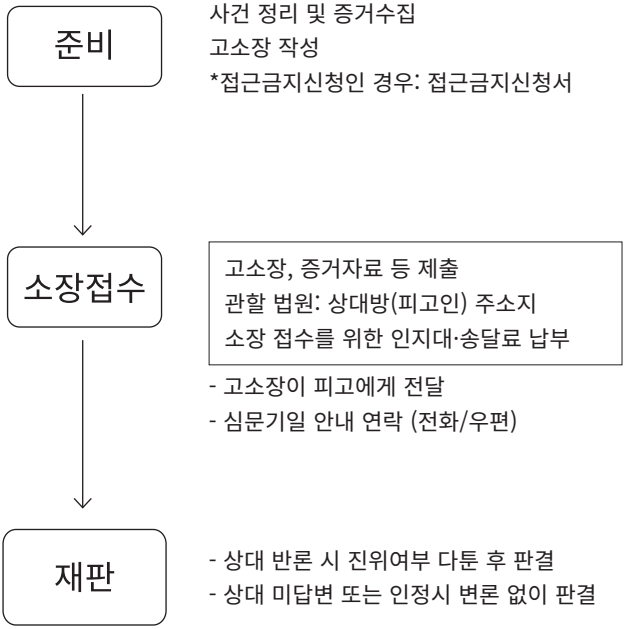


참고: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judiciary/duty/criminal

수사 및 재판 절차

민사소송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으로 인한 장단점을 법률상담을 통해 먼저 고민해보세요.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피해자의 한 마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한다고 혹은 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피해당한 사실과 경험이 부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탓이 아니고,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따르길 바라요. 저는 항상 당신의 편이고, 당신의 판단을 믿고 존중해요.”

“당신이 겪은 건 단순히 둘 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폭력이에요. 몸에 상처가 없을지라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처: 2017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4장

주변에서 누군가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Q1.
어떻게 폭력이라는 걸 못 알아차릴 수 있죠?

A : '내가 신뢰가 없었나?' 라던가,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B : 전 정말 제가 진짜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C :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소리 지르는 정도 까지는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될 거야.' 생각했어요.

D : 주변에서 말하면, '그런 남자는 되게 흔하고, 그런 커플은 정말 흔하다.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감내해'라는 반응이었어요.

E : 폭력적인 행동 이후에는 되게 잘해줘요. 정말 잘해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F :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사귀는 내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오게끔 항상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Q2.
왜 데이트폭력인걸 알면서도 피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지 않는 거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A :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그거 빼고는 완벽해 보이니까. 그거 빼고는 우리 커플의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B : 태도에 대해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여자들한테 '아, 네가 좋게 좋게 이야기 해야지. 여자가 그러면 안되지'라고.

C :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너도 좋아서 사귀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할 것 같아요.

D :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피해자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헤어지지 않고 사귀었니'라는 말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E : 제 탓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헤어지라고 하는데, 헤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대방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F : 저는 폭언을 들었다는 정도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어요. 뭐랄까. 가치관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맞춰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G :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싸우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들 하니까.

Q3.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계속 만나는 건가요?

A : 일단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허물도 내가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 할 때까지 해보자 해서 저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만났던 것 같아요.

B : 폭력 이후에는 항상 더 잘해준다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했었으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C : 나중에 계속 '아, 그 사람도 힘든 경험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매몰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 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Q4.
주위에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 제 얘기를 했을 때 언어폭력이나 통제 피해도 다 인정을 해 주면서 '그거 폭력이고 이제 벗어나세요'라고, 내 행동이 옳다는 판단에 누가 같이 동의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B : '어떤 기관에 가서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때'라거나, 관련 정보를 이야기해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같이 찾아봐주면 좋고, 거길 같이 가주는 거면 완전 힘이 되죠.

C :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폭력이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걔가 이상하네'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어'라는 이상한 오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겪고 있는 건 폭력이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신고를 할 수 있고 너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줬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D :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일 때 '네가 학대받고 있다'는 언질을 계속 해줬어요. 자칫하다간 저를 깎아내릴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면서 '네가 사귀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야, 그건 좋은 연애는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고, 그 친구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출처: 2017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부록

이럴 땐 의심해보세요

데이트 상대가 다음과 같은 행동 중 하나라도 한다면,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하세요. 주변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데도 기다린다.**

☐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진다.**

폭력피해자의 권리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고소 시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 병원에서 검사 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검사과정, 서류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진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일상적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힘이 되는 자료

힘이 되는 책

7층/ 오사 게렌발 저, 강희진 역, 우리나비, 2014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로빈 웰쇼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역, 일단, 2015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저, 오월의봄, 2017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 저, 김명남 역, 창비, 2015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저, 삼인, 2006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은수연 저, 이매진, 2012
버자이너 모놀로그/ 이브 엔슬러 저, 류숙렬 역, 북하우스, 2009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저, 이매진, 2011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에멀린 팽크허스트 저, 김진아 외 1명 역, 현실문화, 2016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정희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저, 동녘, 2006
아주 친밀한 폭력/ 정희진 저, 교양인, 2016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저, 이경미 역, 동녘, 2012
악어 프로젝트/ 토마 마티 글, 토마 마티 외 그림, 맹슬기 역, 푸른지식, 2016
이기적 섹스/ 은하선 저, 동녘, 2015
일상의 반란/ 글로리아 스타이넘 저, 양이현정 역, 현실문화연구, 2002
트라우마/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역, 열린책들, 2012
페미니즘/ 벨 훅스 저, 윤은진 역, 모티브북, 2010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저, 교양인, 2013

참고할만한 사이트

· 한국여성의전화 안녕데이트공작소
http://hotline.or.kr/sogoodbye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http://www.chsc.or.kr/
http://www.chsc.or.kr/?post_type=book&p=89681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초판 1쇄
지은이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작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전 화 02-2133-5035
판매가격 비매품

ISBN 979-11-6161-229-4 (부가기호: 13330)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738-01

이 안내서는 2017 서울시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